김정일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5(2016)년

머 리 말

애국이란 말그대로 자기 조국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자기가 나서자란 정든 고향과 산천, 자기의 부모처자와 다정한 이웃들, 스승들과 친우들, 민족의 슬기와 넋이 깃든 귀중한 문화유산들과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넘겨준 고귀한 전취물들, 자기의 성실한 노력과 땀으로 이룩한 창조물들과 대대손손 지켜가며 살아가는 이 땅, 이 모든것이 그대로 조국이고 그에 대한 사랑이 다름아닌 조국애, 애국주의이다.

조국을 사랑하는것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며 자연스러운 사상감정인 동시에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숭엄한 사상정신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내려오면서 애국에 대하여 그리도 많이 말하였고 애국자들을 민족의 영웅으로 내세우고 숭상하였던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시고 실천에 구현해오신 애국주의는 그 목적과 출발점의 숭고성에 있어서나, 그 본질적내용과 생활력에 있어서나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애국주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오신 애국주의는 그 본질적내용으로 보나 커다란 생활력으로 보나 오직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애국주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할 때 애국주의일반이 아니라 우리 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에서 실지 장군님께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구현해 오신 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에서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애국주의의 귀감이며 우리 인민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다.

그것은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애국주의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를 이어가며 소중히 간직하고 높이 발휘하여야 할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다.

차 례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

일반적으로 애국주의는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며 자기 조국을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숭고한 정신이다. 그것은 그 어떤 체계화된 사상이나 리론, 리념을 뜻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으면서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애국주의는 흔히 애국심이라고도 표현한다.

나라와 민족마다 내세우는 애국심, 애국주의의 성격과 내용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본질에 있어서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리념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하지만 **김정일**애국주의는 지금까지 력사에 존재한 그 모든 애국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

는 자기의 고유한 본질적내용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는것을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구호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이며 조국의 풀 한포기, 돌 하나,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헌신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계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사상감정을 **김정일**애국주의로 명명하시고 그 본질적내용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조국과 민족, 인민에 대한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라는데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적내용이 있고 그 거대한 생활력과 감화력이 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다.

조국과 인민을 자신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고 그것을 온 넋을 다 바쳐 뜨겁고 열렬히 사랑하는것, 바로 이것이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적내용의 하나이며 근본특징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계신 애국자이시였다.

일찌기 눈보라치는 백두밀영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애국적이며 혁

명적인 교양을 받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영웅적인 애국투쟁을 직접 목격하시면서 조국의 귀중함을 온 넋으로 받아들이시였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시였다. 아직은 유년시절이였지만 그때에 벌써 그이께 있어서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귀중한것이였으며 자신의 육체의 한 부분과도 같은것이였다.

어린시절부터 조국의 귀중함을 책에서가 아니라 실지 체험으로 받아들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방후 첫 봄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모란봉에 오르시여 원쑤들에게 짓밟혔던 조국산천의 처량한 모습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였으며 준엄한 전화의 포화속에 온 나라가 불탈 때에도 애어린 두 그루의 잣나무에 승리한 조국의 앞날을 담으시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랑의 감정은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던 날 룡남산마루에 오르시여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의 구절구절에도 담겨져있고 어은동군사야영시절에 지으신 뜻깊은 시에도 그대로 어리여있다.

…
아, 세계가 부러워 너만을 바라보게
내 너를 더 높이 안아올리리
조선아, 조선아!
너는 나의것
나는 너의것

한자한자가 애국의 피방울로 안겨오는 이 시구절의 참뜻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력사를 더듬으며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조국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시였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심중에는 행복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조국땅에서나 조국을 멀리 떠나서나 오직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자리잡고있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관계로 서로 정을 맺고 정을 나누게 되지만 자기 조국과 맺은 정이야말로 끊을수도 없고 버릴수도 없는 깊고깊은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체험에 의하면 다른 나라에 가면 제일 그리운것이 조국이라고 하시였다.

주체90(2001)년 여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삼복더위를 이겨내시며 진행하신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의 20여일은 수만여리에 달하는 길고긴 로정에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이의 절절한 그리움이 눈물겹게 새겨진 감동적인 나날이였다.

렬차가 로씨야의 어느 한 지방도시를 향하여 달리고 있을 때 그이께서는 동행한 한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비행기를 타고 조국에 갈데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조국으로 떠나는 동무가

부럽습니다, 나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조국으로 돌아갈 날이 아직 멀었는데 동무는 조국에 갔다오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국을 떠난지 한주일도 못되였는데 수령님이 그립고 조국인민들, 조국산천이 그립습니다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날은 그이께서 조국을 떠나신지 불과 5일째 되는 날이였다.

모스크바를 향하여 렬차가 조국과 더욱더 멀어져갈수록 그이의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만갔다.

로씨야련방방문을 마치시고 조국에 도착하신 후인 8월 23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방문소감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로씨야를 방문하는 전기간 조국과 인민을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오래동안 가있으니 조국과 인민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잊을수가 없었습니다, 조국의 사랑하는 모든것이 다 그리웠습니

다, 그때 내가 동행하는 일군들에게 조국과 인민이 못견디게 그립다고 말하였더니 많은 동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라고 격한 심정을 터놓으시였다.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계시였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두고온 조국과 인민들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러보군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대대손손 누려갈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기도 하시였고 한편의 노래와 시를 들으시여도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와 시를 제일로 좋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나무가 얼마 없는 산들을 보시면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삼천리금수강산이라

고 하였는데 우리가 조국의 산천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훌륭히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부대주변의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꾼것을 보시면 더없이 기뻐하시며 애국자부대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아담하게 꾸려지고 살구나무나 감나무들이 우거진 마을과 중대병영을 보시면 환하게 웃으시며 살구나무동네, 감나무중대라고 민족의 향취를 담아 정답게 불러주군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시였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견결히 옹호고수하신데서 최절정을 이루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애국이란 자기가 나서자란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에 대

한 참다운 사랑이라고 간주하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철두철미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사랑의 견지에서 모든 사색을 펼치시고 애국의 진가를 평가하시면서 애국의 정치를 펴나가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서정시《나의 조국》을 조국애를 노래한 우수한 작품으로, 본보기로 내세우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들, 청년들이 누구나 다 알아야 할 시로 지정해주신데도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그이께서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은 시가 많지만 서정시《나의 조국》처럼 조국애를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훌륭히 노래한 작품은 흔치 않다고 하시며 서정시《나의 조국》은 조국애를 노래하였지만 단순히 나서자란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된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어려운 시기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신것도 선군의 길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담보하는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애국의 길이였기때문이다.

다시는 우리 인민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말며 우리 조국이 더는 대국들의 《속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해서는 안된다는 신조를 가슴깊이 새기신 그이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였으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으시였다.

우리 인민이 여러차례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핵시험에서의 성공을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사적경사로 그처럼 기뻐하며 경축한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무궁한 담보를 마련한것이기때문이다.

하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95(2006)년 10월 우리가 핵시험을 성공시키고 핵

보유국이 된것은 5 000년 민족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커다란 사변이며 민족의 장거이라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조국을 두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신것도 조국통일이 조국과 민족의 생존권인 자주권을 확립하는 절박한 문제이기때문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외세에게 유린당하는 치욕의 력사를 끝장내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대용단으로 력사적인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하시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는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제일생명으로 여기시는 그이의 숭고한 애국의 정신이 그대로 맥박치고 있으며 이로 하여 그것은 조국통일의 밝은 전

망을 열어놓은 통일의 리정표로, 애국애족적인 통일대강으로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다.

이렇듯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과 조국을 단 한치의 간격도 없는 불가분리의 생명체로 여기시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늘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계시였다.

정녕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바로 여기에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적내용의 하나가 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다음으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과 인민앞에 서는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가 아니라 한몸을 내대여 실천하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견지해오신 일관한 자세였으며 조국의 륭성발전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은 그이의 삶의 전부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이러한 애국자의 변함없는 자세로 오로지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는 방패가 되시고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시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수호전에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였다.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가장 첨예한 대결이였으며 력사에 류례없는 매우 준엄한 투쟁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운명을 지키시려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고 사생결

단의 길,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였다.

준엄했던 사회주의조국수호전의 나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쉬임없이 이어가신 선군령도의 그 길에는 고난의 그 나날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병사들을 찾아 십여차례나 넘으신 철령의 가파로운 벼랑길도 있었고 몸소 어깨를 들이미시고 미끄러지는 야전차를 밀고오르신 오성산의 152굽이도 있었으며 파도세찬 폭풍우속을 뚫고 조국의 서해관문을 지켜선 병사들을 찾아 떠나신 초도의 배길도 있었다. 그것은 말그대로 죽음을 각오한 사생결단의 길, 조국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헌신으로 이어진 애국충정의 길이였다.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판문점에까지 나가시여 인민군장병들에게 자주적근위병의 넋과 불타는 적개심을 심어주신 그이의 그 희생적인 헌신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맡기고가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얼마나 간고한 애국헌신의 길을 걸어오시였는가 하는것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입고계시던 단벌솜옷이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시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다가 문득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솜옷에 대하여 이야기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그이께서는 이 솜옷을 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입었는데 준엄하였던 력사를 잊을수가 없어 아직까지 벗지 않고있다고, 이 솜옷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솜옷도 오래 입으면 얇아져 추위를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얇아진 솜옷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도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자신을 불태우시며 10여년나마 그 한벌의 솜옷을 입으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

인간적인 정력으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고찾으시여 병사들을 한품에 안아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희생적인 애국헌신과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조국이 오늘은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천하무적의 군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원쑤들이 감히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치지 못하게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철벽으로 다져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애국업적과 선군장정에 대해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김정일**애국주의가 얼마나 값높고 숭고한것인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은 또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초불처럼 깡그리 태워오신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

적인 헌신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갈 맹세를 담아 푸르른 거목의 잎사귀가 되겠다고 말씀올리는 일군들에게 동무들이 거목의 잎이 되겠다는 말은 리해된다, 그러나 잎의 의미보다 뿌리의 의미가 더 크다, 혁명하는 사람은 뿌리가 되여야 한다, 내가 오늘 진정으로 하고싶은 말은 우리 다같이 힘껏 일하자는것이다, 우리는 안락을 바라지 말자, 강성국가를 위하여 함께 일하자, 함께 뿌리가 되자라고 말씀하시였다.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자면 뿌리가 든든하여야 한다. 나무는 뿌리가 든든하여야 억센 거목으로 자랄수 있다.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큰 나무도 말라죽고 만다. …거목이 무성한 가지와 잎을 떠이고 거연히 서있는것은 뿌리가 든든하여 영양소를 끊임없이 보내주기때문이다. 거목은 눈에 보이지만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 아름드리거목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거목을 받쳐주고있는 뿌리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뿌리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땅속에서 거목을 위하여 쉬임없이 일한다. 혁명과 혁명가들사이의 관계는 거목과 뿌리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말할수 있다.

조국의 뿌리로 사는것, 이것이 그이의 전생애를 관통하고있는 인생관이였고 애국주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자신을 조국이라는 거목을 받드는 뿌리로 여기시고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조국의 힘을 키우시기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고 바칠수 있는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인민들이 겪는 고난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가슴이 저리시였지만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우리 조국을 강대한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하시기 위하여 오직 앞으로만 억세게 나아

가시였다. 자신의 한생을 뿌리로 묻으시는 그 길에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이 백방으로 다져지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최첨단돌파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으며 부강번영의 무수한 씨앗들이 뿌려졌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에 떠받들려 모든것이 어려웠던 그 시기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중소형수력발전소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수풀처럼 일떠서고 수많은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되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통이 큰 작전에 따라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토지답게 정리되고 여러 지구에 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되였으며 날바다를 막아 조국의 대지를 넓히는 선군조선의 기적이 창조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체철과 주체비날론, 주

체비료는 물론 원흥땅과 북청, 덕성의 사과바다, **김일성**종합대학전자도서관을 비롯한 과학교육의 최고전당들과 문화정서생활거점들, 만수대지구의 새 거리와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말해주는것처럼 우리 조국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고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수자로 계산될수가 없는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이룩되고있는 CNC화의 성과들은 고생하는 인민들을 두고 가슴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기어이 조국의 힘을 키워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시려는 큰 뜻을 안으시고 기계제작공업의 현대화를 위한 대용단을 내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주의가 얼마나 숭고하고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그이께서는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을 들으실 때마다 CNC화실현을 위하여 헤쳐온 험난한 길들과 마음쓰던 일들이 되새겨져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군 하시였다.

천만심장을 다 불태워도 대신할수 없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열도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초인간적인 헌신으로 줄기차게 이어가신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로정에 그대로 아로새겨져있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의 강행군길을 걷고걸으신 로정은 조국의 참된 애국자가 되시여 언제나 천만군민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신 영웅서사시적인 행로이다.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늘 마음속에 안고사신 맹세였고 실천이였다.

초강도로 이어진 현지지도강행군길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일군들에게 자주 외우시던 말씀이 있다.

우리 나라를 강성국가로 만들고 우리 인민들

을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기 전에는 순간도 휴식할수 없다. 이런 의지를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 신상에 무거운 병환을 안고계시면서도 현지지도의 길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한가지라도 더 해놓으시려고 날이 갈수록 강행군속도를 몇배로 높이시며 쉬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길은 그대로 비상한 각오와 신념으로 이어진 초인간적인 로정이였다.

오늘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열렬한 애국헌신, **김정일**애국주의가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며 고귀한 결정체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변혁을 이룩하시고도 자신의 희생적인 헌신의 로고는 마음속깊이 묻으시고 단한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시였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가지도 해놓은것이 없으시였다.

2월16일극장으로 부르게 되였던 극장의 이름을 함흥대극장으로 고쳐주시고 한 군중시위의 가장물에 새기려던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만세!》라는 구호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만세!》로, 한 작가가 창작한 노래의 제목도 《번영하여라 **김정일**시대》였던것을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로 바꾸도록 하신 사실은 단순한 겸허성에 앞서 한생을 조국의 뿌리로 사신 그이의 숭고한 애국주의, 인생관의 일단을 보여주는 일화로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이처럼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헌신이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우리 시대의 숭고한 애국주의로 되는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최고정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라는것은 바로 그것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집대성이며 그 최고단계를 이룬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력사상 처음으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을 사회제도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키고 민족자주의식과 사회주의사상의 통일을 실현한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인민대중의 애국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이룬다면 **김정일**애국주

의는 그러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되는것은 그것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기초하고있는 애국주의이기때문이다.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내놓을수도 지닐수도 없었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수령중심의 조국관, 이민위천의 인민관, 미래사랑의 후대관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운 근본바탕으로 된다.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지니시고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서사시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는 진정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이다.

수령중심의 조국관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은 곧 수령이라는 가장 숭고한 조국관, 수령중심의 조국관에 기초하고있는 애국주의이다.

조국관이란 말그대로 조국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너무도 자명한것이여서 누구에게나 새삼스럽게 들리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이 있고 부모처자가 있으며 선조들의 넋이 깃든 땅을 누구나 조국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조국은 단순히 령토적, 지정학적개념만이 아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몸바쳐싸우는가 하는것은 물론 애국자와 매국노를 가르는 기준도 어떤 조국관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귀착된다. 지난날의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것도 구경은 조국에 대한 견

해와 관점이 다르기때문이다.

결국 옳바른 조국관을 확립하는것은 단순히 인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운명, 매 개인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회정치적 문제이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자기의 조국에서 살며 활동하여온것만큼 자기가 나서자란 조국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사상가나 정치가도 옳바른 조국관을 정립하지 못하였다.

원래 조국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볼 때 조상의 땅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지난 시기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주로 령토위주로 론의하면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이 조국이라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하나의 공동체안에서 동포들이 사는 지역이라든가 아득한 옛날부터 선조들이 살아왔고 사람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령토라고 한것이 그러한 실례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령토적의미만을 담고있던 조국에 대한 종래의 견해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전혀 새로운 안목에서 조국에 대한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견해를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조국관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중심의 조국관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고전적명작《조국의 품》에서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의 품이라고 노래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수령이며 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시였다.

해방전 우리 인민은 조상의 무덤이 있고 나서자란 땅은 있었지만 그것을 일제에게 빼앗겼던탓에 진정한 조국이 없었다. 예로부터 나라잃은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다. 우리 인민이 바로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민족수난의 피눈물을 안고 살아왔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피타게 절규하며 조국이 없는 민족의 뼈아픈 설음으로 가슴을 치던것이 해방전의 우리 인민이였다. 그러던 우리 인민에게 진정한 조국을 찾아주시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곧 조국이시고 민족의 운명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품이야말로 우리 인민모두에게 있어서 진정한 조국의 품, 자애로운 태양의 품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발전,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주체적해명과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 온 세계에 그 위용을 높이 떨치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새 력사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수령은 곧 조국이며 수령에 대한 충정은 최대의 애국이라는 수령중심의 조국관을 확립하시였다.

조국은 곧 수령이라는 주체의 조국관은 모든것을 수령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처음으로 내놓으실수 있는 조국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와 관점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에 관한 새로운 원리,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된 수령과 인민대중의 호상관계에 대한 독창적인 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모든것을 수령을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방법론, 수령중심론을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수령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모든것의 중심에 인민이 있고 인민대중의 중심에 수령이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바로 이 수령중심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은 수령이라는 독창적인 조국관을 확립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조국

은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이며 그것은 오직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될수 있다는 주체의 혁명원리로부터 력사상 처음으로 조국은 수령이라는 견해를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수령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에 의해서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지켜지고 담보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의 최고체현자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삶이 꽃펴나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참다운 조국을 안아오고 가꾸는 결정적요인이다. 인민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펴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인민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수령이며 수령이자 조국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중심의 조국

관을 정립하시면서 우리 수령제일주의로부터 출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인가 우리 수령님께서 위대하시기때문에 우리 조국이 위대하고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고 하시면서 때문에 자신께서는 조국에 대하여 말할 때 먼저 우리 수령님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로 우리의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하시기때문에 우리 조국과 민족이 위대하다는 신조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조국관을 억척같이 떠받드는 초석으로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수령중심의 조국관은 단순한 추상적사고의 론리적귀결이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인 주체시대를 개척하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현대조선의 새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집대성한데 기초한 개념이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주로 존엄높은 강대한 민족으로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빛내여주시고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떠나서는 사회주의조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존엄과 긍지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주체조선의 탄생과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세기적기적과 변혁의 모든것은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에 의해 결정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조국은 곧 수령이며 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라는 숭고한 조국관은 일찍부터 조국의 운명개척을 위한 벅찬 실천투쟁속에서 조국의 귀중함과 함께 수령의 위대함을 심장으로 체득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정립하실수 있는

위대한 발견으로 된다.

어린시절부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두차례의 준엄한 혁명전쟁과 새 조국건설의 벅찬 현실을 체험하신 그이께서는 이 나날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곧 우리의 조국이시고 조국의 품은 수령님의 품이라는것을 마음속깊이 간직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사람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간직할수 없었던 가장 고귀한것을 체득하실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에서의 생활은 그이께 있어서 참으로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에 계시는 기간 전쟁의 승리를 마련해나가시며 승리할 래일의 복구건설을 설계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뵈오면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렬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심장으로 절감하신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 자신의 사상감정을 가요 《조국의 품》에 그대로 담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을 창작하시던 나날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은 오늘도 인민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방전에 어느 한 시인은 종달새가 피터지는 목청으로 운다고 썼다고, 그러나 해방후에 우리는 종달새가 운다고 한것이 아니라 종달새가 노래한다고 하였다고, 비록 전쟁을 한창 겪고있지만 우리에게는 조국의 모든것이 더 아름답고 밝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신다는 믿음,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지금은 좀 어려워도 우리는 기어이 승리하고 전쟁전보다 더 좋고 행복한 생활을 꾸려나갈것이라는 신심과 락관, 희망이 있기때

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말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조국의 모든것,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밝게 비쳐주는 해빛이라고, 조국의 품은 곧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 인민이 피로써 찾은 진리였다. 곡절많은 민족의 력사속에서 우리 인민은 조국의 진정한 의미를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조국은 수령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수령에게 충정을 다하는데 최고의 애국이 있다는 조국에 대한 가장 옳바른 태도와 립장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실성이며 이것은 애국심의 최고표현입니다.》

조국에 대한 태도와 립장,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여러가지로 표현된다. 혁명적당과

인민의 정권,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찬란한 문화,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도 표현되고 조국의 수호와 륭성번영을 위해 한몸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영웅적인 투쟁과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더 가꾸어 후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말없이 한생을 묵묵히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으로도 표현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모든 애국의 최고정화, 근본원천은 바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지만 수령에 대한 충정에 최고의 애국이 있다는것을 밝히고 실천으로 보여준 위인은 없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리론에서는 수령을 개인으로 보고 수령의 역할도 그 어떤 특출한 개인의 역할에 귀착시킨데로부터 조국을 수령과 결부시켜 보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애국을 수령에 대한 충정으로 승화시키지 못하였다. 수령을 개

인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절대로 조국에 대한 사랑을 수령에 대한 충정과 통일시켜볼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수령에게 충정 다할수 없다.

조국과 수령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수령에 대한 충정과 결합시키는것은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나라의 위대성은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수령의 위대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세상에 자랑떨치는 위대한 나라로 될수 있지만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면 아무리 령토가 크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하여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수 없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삶을 안겨줄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것이자 수령에게 충실하는것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애국심의 발현으로, 애국주의의

최고표현으로 된다는 고전적정식화를 내놓으시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조국에 대한 태도와 립장의 진수가 있고 그이의 애국주의의 근본특징이 있다.

수령에 대한 충정이 최고의 애국이라는것은 지나온 혁명투쟁의 력사가 보여주는 고귀한 진리이며 그 총화이다.

우리 혁명의 력사를 돌이켜보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사람들은 례외없이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들이였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영웅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와 전면적건설시기의 영웅들과 공로자들, 선군시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은 다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들이였다.

혁명투쟁력사는 자기 수령, 자기 당을 믿고 따르는 신념이 투철하지 못한자들은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 반드시 조국을 배반하는 반역의

길로 떨어진다는 교훈도 남기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애국의 전통가운데서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가장 귀중히 내세우시며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해나가도록 하신것도 이러한 리유에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무리 세대가 교체되여도 결코 교체되지 말아야 할것이 애국의 전통, 애국의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애국의 전통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이 수령에 대한 충정에서 가장 높이 발현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신것은 진정한 애국이 어디에 있으며 애국의 진가를 평가할수 있는 절대적기준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명시한것으로서 수령중심의 조국관에 기초한 애국주의의 전면적확립으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중심의 조국

관을 확립하시고 그 실천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헌신은 철두철미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일관되여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자신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사로 여기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권위,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며 우리 조국을 수령님의 나라로 빛내여오신 수령옹위, 수령영생위업실현의 한생으로 빛나고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언제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함께 계시면서 수령님의 사상과

뜻대로 모든것을 해나가는것을 자신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로 간직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심려하고 걱정하시는 문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완전무결하게 해결하는데서 자신의 더없는 만족과 행복을 찾으시군 하시였다.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어떻게 하면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더 훌륭히 실현하겠는가 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있어서 모든 사업의 절대적인 평가기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만족을 드리는가 드리지 못하는가 하는것이였으며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은 수령님께 최대의 기쁨을 드리는것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일군들에게 **김정일**동지는 내가 바라고 걱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나 실현하고야만다고, 바로 여기에서 그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 그리고 지극한 효성이 집

중적으로 표현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김정일**동지의 끝없는 충실성은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더 숭고한 높이로 발휘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세계사회주의운동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것은 혁명적도덕의리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되는 동시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애국의 최고정화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공화국의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고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애국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수령님의 후손,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값높은 긍지와 영예를 안겨주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이도록

하심으로써 이 땅우에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창조한 조국의 훌륭한 재부를 보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 보여드리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하신 절절한 말씀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충직한 전사로 사신 그이의 숭고한 충정의 세계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의리에 떠받들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고 **김일성**민족의 100년사가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지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영원한 수령님의 조국, **김일성**조선으로 찬란히 빛을 뿌리게 되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수령에 대한 충정과 결합시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애국의 숭고한 넋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애국의 한길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가장 숭고한 조국관을 체현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이처럼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수령중심의 조국관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되는것이다.

이민위천의 인민관

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그 바탕을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그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조국을 위한다는것은 곧 인민을 위한다는것이다.

인민대중과 조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은 애국의 성격과 높이를 규정하는 중요

한 문제의 하나이다.

원래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으로서 사회와 력사발전의 참다운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가치있고 아름다운 물질적 및 정신적재부들이 창조되며 선진적인 사회관계, 사회제도가 세워진다.

조국을 이루는 령토와 재부와 인민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령토나 재부가 아니라 바로 인민이다. 조국을 조상대대로 살아오는 땅이라고 하는것도 결국은 인민들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대를 이어가며 지키고 가꿔가는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인민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고 표현되며 인민에 대한 사랑은 어떤 인민관을 지녔는가에 따라 그 높이가 규정되게 된다. 인민을 어떤 존재로 보고 어떻게 내세우

는가 하는 인민관의 높이이자 인민에 대한 사랑의 높이이며 애국의 높이라고 말할수 있다.

력사적으로 착취계급과 그를 옹호하는 반동적인 사상가들은 인민대중을 우매하고 천한 존재로, 저들의 통치대상으로만 보아왔다.

물론 지난 력사적시기에 인민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던것은 아니다.

착취사회의 통치자들속에서도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중시해야 한다는 중민사상이 나왔는가 하면 백성들을 사랑하는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것을 제창한 애민사상이 제기된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다 인민대중을 실지로 중시하거나 사랑하는데서 나온것이 아니라 그들을 착취와 억압의 쇠사슬에 더 든든히 얽어매놓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기만적인 속임수에 불과한것이였다. 인민대중을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보아온 통치자들과 억압자들은 그들을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모욕하면서 력사를 창조하는것은 탁월한 개인이나 영웅호걸이라고 하였다. 결국 수천년간에 걸치는 착취계급사회에서 인민대중은 력사밖에 밀려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력사를 창조하는데 리용되는 한갖 수단, 대상에 불과한 존재로 취급당하였으며 소수 지배계급에 의하여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착취와 압박만을 받아왔다. 착취사회에서도 근로인민대중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물질적,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으나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탓으로 많은 경우에 지배계급의 의사에 따라 력사를 창조하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을 력사의 창조자라고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인민에 대한 종래의 온갖 그릇된 견해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와 력사를 대하는데서 력사발전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그들도 력사발전의 궁극적요인을 객관적

인 물질경제적조건에서 찾는 유물사관의 원리를 절대화함으로써 세계의 모든것을 보고 대하는데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는 관점에는 서지 못하였다.

인민대중을 력사의 대상으로 보거나 객관적조건과 환경을 절대시하는 관점에서는 결코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사상감정이 나올수 없으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결부시켜보는 참다운 애국주의가 나올수 없다.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견해에 기초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 애국주의를 새롭게 정립할데 대한 력사적과제는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무지몽매한 존재로만 간주되여온 인민대중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인민대중은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을 결정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보고 대하

여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일찍부터 간직하고계신 일관한 립장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인민대중중심의 관점으로부터 조국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확립하시였다.

사실 애국에 관한 문제를 대하면서 제일 중요한것은 누구를 위한 애국, 어떤 조국을 위한 애국인가 하는것이다.

조국은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들에게 참다운 삶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곳이다. 인민대중에게는 단순히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살아온 땅으로서의 조국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참된 삶이 담보되는 조국이 더 귀중하고 필요한것이다.

이로부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날 조국청사에 이름을 남긴 력사적인물들에 대하여서도 언제나 그들이 어떤 조국을 위해 공적을 세웠는가 하는것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그 가치를 평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남달리 애국심이 높

고 정의감이 강한 민족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언제한번 이 땅을 침범한 외래침략자들을 용서해본적이 없으며 근면하고 성실한 로동으로 이 땅을 기름지게 가꾸고 꽃피워왔다.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력사를 더듬어보면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희생적으로 싸운 애국명장들과 애국렬사, 애국지사들을 수많이 찾아볼수 있으며 그들이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세운 공적은 우리 민족사의 자랑으로 된다.

그러나 과거의 애국명장들이나 애국렬사, 애국지사들에게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하는 긍정적인 점이 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봉건적충군사상에 기초하거나 부르죠아민족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싸웠다.

그들에게는 외래침략을 물리침으로써 인민들이 더 큰 불행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생각보다도 자기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제도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려는것이 기본이였다.

력사적으로 어느 시기에나 침략자를 반대하여 끝까지 굴함없이 싸운것은 인민들이였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는 조국과 고향땅이 외래침략자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더 큰 불행과 고통, 착취와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침략자들과 싸웠다. 하지만 지난날 인민들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조국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는 나라였고 고향땅이였다. 그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를 사랑하는 정신과 결합시키지 못하였으며 또 결합시킬수도 없었다.

결국 력사적으로 벌어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을 위한 반침략투쟁과 그 투쟁에서 발휘한 인민들의 애국심은 어느것이나 다 높이 평가하고 찬양해야 할것이지만 그것은 인민들의 참된 삶이 꽃펴나는 진정한 조국을 위한 애국으로는 될수 없었다.

인민을 위한 진정한 애국은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인 항일혁명투사들에 의하여 비로소 창조되고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조국해방위업의 성전에 나선 항일혁명선렬들은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한 애국투사들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바라던 조국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에게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조국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에게는 오곡백과 무르익는 조국의 풍요한 대지와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인민을 위하여 귀중하였다. 인민대중에게 자유와 행복을 마련하여주는 인민의 나라, 인민의 참된 삶의 요람으로 될 조국을 위해 바친 고결한 넋이였다는데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애국주의의 근본특징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과 결부된 조국, 인민대중에게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조국에 대한 새로운 견해로부터 우리 인

민의 참다운 조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조국이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야말로 참다운 애국주의라는 고귀한 사상을 밝히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펴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여있는 곳이 참다운 조국이라면 그러한 조국은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조국이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 그 우월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정립하신 조국에 대한 새로운 견해였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심장속에 진정한 조국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끝내 자본주의로 복귀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것은 결코 사회주의사회가 행복한 삶을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시켜주는데서 그 어떤 부족점이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온갖 착취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

회주의의 본질적특성과 절대적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사회주의사회를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보금자리로 건설해나갈수 있는 지침을 안겨줄수 있는 진정한 애국의 정치가, 령도자가 없었기때문이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애국주의교양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조국이 무엇인가에 기초한것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이 나라들에서는 애국주의교양을 하면서도 주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의 령토를 지키는 조국보위에 대해서만 강조하였다. 그러다나니 인민의 원쑤들,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조국을 옹호한다는 기만적인 말로써 저들의 반인민적정체를 가리우면서 수십년간 존재하여온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조국을 허물어버리려고 책동하였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반동성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그들의 거짓선전에 넘어가고말았던것이다. 결국 이전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군대와 인민이 진정한 조국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데로부터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귀중한 조국을 하루아침에 인민의 원쑤들에게 빼앗기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사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도 포함하여 지금까지 사회주의라고 하면 흔히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라고 리해하여왔다.

사회주의사회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인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거나 우월성의 전부인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은 어디까지나 그 주인인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와 그 실현의 견지에서 찾아야 한다.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는 자주적요구이며 그것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이다.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것은 인민대중이 자기

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착취와 압박의 청산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지만 그것으로써 인민대중의 본성적 요구가 다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 때 참답게 실현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사회주의사회는 단순히 착취와 압박이 없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인것만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사회,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주인으로서의 값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회이다.

반면에 자본주의사회는 인민대중에게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와 조건도 보장하지 않는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사회, 극소수 착취계급에게는 천당이고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지옥으로 되는 거꾸로 된 사회, 정치생활의 반

동화, 물질생활의 기형화, 사상문화생활의 빈궁화가 날로 심화되여 파멸의 길로 줄달음치는 부패한 사회이다.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행복한 삶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확고히 담보되며 따라서 참다운 애국주의는 인민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사상의식과 민족자주의식이 결합되고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과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참다운 애국주의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며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뗄수 없이 결합되여있다.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 인민대중의 운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비로소 성과적으로 개척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중심에 놓고 참다운 조국에 대한 옳바른 해명이 주어짐으로써 애국주의가 인민대중과의 관계속에서 밝혀지게 되였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곧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라는 고귀한 애국의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애국자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천은 장군님의 한생의 좌우명이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하시였으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신조였습니다.》

이민위천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좌우명이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좌우명이였으며 정치철학이였다.

이민위천, 바로 이 한마디의 말속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이 집약되여있다.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것은 인민을 이 세상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가장 지혜롭고 우월한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고 내세운다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으시여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내세우시였으며 인민을 선생으로 존경하고 따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인가 현지지도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당중앙위원회 청사지붕우에서 창공높이 나붓기는 당기를 가리키시며 일군들에게 우리 당기는 바라볼수록 마음이 숭엄해진다, 저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붉은 기폭에는 인민대중, 다시말하여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모습이 새겨져있다, 인민대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아름답다, 그러기에 나는 인민대중을 열렬히 숭배한다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셨기에 자신을 늘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로, 심부름군으로 여기시였으며 한평생 인민에게서 배우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자신의 더없는 보람으로, 좌우명으로 여기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놓여있었다. 인민이 있

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이 그이의 애국신조였고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그이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인민의 리상이 더 활짝 꽃펴날 부강조국의 래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온갖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것의 가치를 평가하시였고 인민의 지향과 요구, 리익을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였으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면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과 의논하시면서 그 수행방도를 찾으시였다.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 인민들의 리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그것이 크

든작든 무조건 일보의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업원칙이였고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 인민사랑의 길에서 그이께서 하시는 첫 물으심이였다.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인민의 리익을 제일 최우선, 절대시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있어서 가장 기쁘신 때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실 때였고 제일 괴로워하신 때는 일군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여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들이 불편을 느낀다는것을 아실 때였다.

어느 한 닭공장이 새로 개건되여 인민들이 실제로 그 덕을 보기 시작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서는 새로 개건된 닭공장에서 생산한 닭고기를 공급받고 인민들이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고 전기화가 실현된 새 살림집들에서 농장원들이 당의 은덕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있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나는 우

리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산다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였다.

마음속에 언제나 조국과 인민을 안고 사시며 인민들의 기쁨에서 최대의 행복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을 따라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하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고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주체98(2009)년 우리 나라에서는 철갑상어양어에서 완전히 성공하는 특기할 성과가 이룩되였다.

철갑상어양어에서 완전히 성공한 양어장은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을 때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보고 건설하도록 하신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창조물이다.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사정이 너무 어려워 누구도 양어장을 꾸릴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그러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행

복하게 살 앞날을 그려보시며 대규모의 양어장을 꾸릴것을 결심하시고 여러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많은 품을 들이시였다.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철갑상어고기맛과 알젓맛을 보이고싶은것,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사정이 긴장하여도 변함없이 자기 일터와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낸 인민들에게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루빨리 남들이 부러워하도록 훌륭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고싶은것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심정이였다.

주체98(2009)년 6월 철갑상어양어장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는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인민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들은 마땅히 철갑상어료리와 같은 세계적인 고급료리도 맛보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이 얼마나 자랑찬 현실입니까, 만난을 이겨내고 강성국가의 분수령에 오르게 된 오늘 나

는 시련도 많고 곡절도 많았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혁명은 바로 이런 재미에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자부심과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됩니다라고 하시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이것이 나의 활동의 근본원칙이고 생의 목표입니다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현실들을 대하실 때마다 온갖 피곤이 다 풀린다고 그토록 기뻐하시며 또다시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것은 바로 인민을 이 세상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 행복관에 그 뿌리를 두고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일군들에게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김정일**동지의 좌우명이라고, **김정일**동지처럼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없으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자신의 가장

성스러운 사명으로 간주하는 령도자는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군 하시였다.

이렇듯 인민을 위한 복무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력사적사명으로 간주하시고 마음속에 언제나 인민을 안고 사시였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보지 않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으시며 그들이 언제나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이 자기 단위 책임일군을 우리 아무개라고 부르는 말을 들을 때 제일 기뻐하시며 그렇게 불리우는 일군들을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전우, 진짜동지로 내세우시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는 길에 구봉령의 령길을 관리하는 가족소대원들이 도당책임비서를 《우리 도당책임비서동지》라고 부르면서 그를 제발 평양

으로 소환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제기를 들으시고 큰 충격을 받으시였다.

그런데 한 일군은 구봉령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가족소대원들이 도당책임비서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있다고 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그 자신과 당에 대한 신뢰이고 평가이다, 사람이 우리라는 말은 하기 쉬워도 우리라는 말과 함께 불리우기는 힘들다, 대중은 아무에게나 우리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우리라는 말은 대중이 일군들에게 주는 가장 값높은 칭호이며 표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겠는가 하는 오직 이 하나의 생각뿐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바로 이런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그리도 많이 걸으시였으며 이 땅우에 인민사랑의 화원을 펼쳐주시였다.

하기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오늘도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라고 노래한《인민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평생 인민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계신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삼가 우러르며 솟구치는 격정의 눈물을 금치 못해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바탕을 두고있는 인민에 대한 불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였으며 인민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였다.

이처럼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이민위천의 숭고한 인민관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되는것이다.

미래사랑의 후대관

김정일애국주의는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숭고한 인생관, 미래사랑의 후대관에 기초하고 있는 애국주의이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것인 동시에 후대들을 위한 아름답고 숭고한 위업이다. 참다운 조국은 오늘의 세대뿐아니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조국에 대한 사랑은 곧 후대들에 대한 사랑이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는것은 후대들을 위해 헌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 자기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들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는데 그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 조국을 모르고 후대들도 모르는 사람, 사회와 집단이야 어떻게 되든 저 혼자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참된 삶에 대하여 알수도 없고 인생의 보람과 가치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후대들을 위해 바쳐진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값높은 삶이며 진정한 애국으로 된다는것은 지나간 인류력사가 남긴 귀중한 진리이다.

후대들을 사랑하는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사상감정이지만 그 가치와 열도는 어떤 후대관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후대들이라고 하면 흔히 청년들과 어린이들, 앞으로 태여나 자라나게 될 새 세대들을 의미한다. 후대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키우며 대하는가 하는것이 바로 후대관이다.

후대들에 대한 문제는 그 어느 시기,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사회에서나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것은 후대들이란 곧 자기자신의 후손들이며 가정과 사회, 나라와 민족, 인류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이기때문이다.

후대들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이자 나라

와 민족의 앞날에 대한 견해와 립장이며 자기자신들에 대한 태도이다. 후대들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 혁명의 전도가 결정되며 자기자신들의 미래가 좌우된다. 정치의 진보성도, 사회제도의 우월성도 후대들에 대한 관점, 후대들에 대한 사랑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후대들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하는 문제는 특히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령도자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나라와 민족이 대를 이어 부강번영하고 혁명이 생기를 잃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하자면 령도자가 옳바른 후대관을 지니고 후대들을 키우고 보살펴주는 사업을 최우선시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이고 혁명적인 후대관, 후대사랑을 지니시고 그것을 애국주의와 결부시켜 한평생 조국과 인민, 후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후대관은 무엇보다도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미래의 역군으로 보시는 후대들에 대한 가장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견해와 관점이였다.

후대관은 청년들에 대한 견해와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청년들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후대관의 기본내용이다.

앞선 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끊임없는 교체과정을 통하여 발전하여온 인류력사에서 청년문제는 언제나 중요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되였다.

하기에 력사적으로 철학가, 정치가, 교육자들은 례외없이 사회개조와 변혁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사명을 두고 많은 견해들을 내놓았다.

고대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장래운명은 청년들에 대한 교육여하에 달려있다

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보다 큰 관심을 돌릴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학자들과 정치가들은 계급적 및 사상적제한성으로 하여 청년들이 사회발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해명을 줄수 없었으며 더우기 그들이 념두에 둔 청년들이란 주로 귀족, 량반출신의 청년들을 의미하였다.

사회발전, 혁명투쟁에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고 그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처음으로 제기한것은 맑스와 레닌을 비롯한 선행고전가들이였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사상가들은 혁명투쟁에서 청년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혁명의 교량자, 보조적력량, 후비대로 보았다. 이것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 청년들을 중시하고 그들의 지위에 대한 리해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것이였으나 청년들을 전세대에 의거하여 그들의 지도와 교양을 받으며 보조적으로 혁명을 해나가는 계층으로 보는것으로서 청년들에 대한 완벽한 견

해라고 할수 없었다.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견해와 관점은 선행한 고전가들과는 다른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견해와 관점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선 청년들을 단순히 혁명의 후비대로서만이 아니라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있는 혁명의 계승자, 혁명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야 할 청년전위로 보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지 않으며 대를 이어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력사적인 위업이다.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부단한 세대교체속에서 이어져나가는 계속혁명의 과정이다. 세월이 흐르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듯이 혁명투쟁이 계속되면 혁명의 세대들도 끊임없이 바뀌게 된다.

사람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혁명도 간고하지만 착취사회가 남겨놓

은 온갖 낡은 유물과 반동적인 사상을 철저히 극복하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자면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한 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혁명을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혁명투쟁의 장기성은 필연적으로 혁명을 대를 이어 계속해나갈것을 요구하며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군, 계승자로 보고 청년문제를 옳바로 해결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위업계승완성의 이러한 합법칙성으로부터 청년들을 혁명의 후비대로서만이 아니라 혁명의 계승자로, 청년전위로 내세우시였다.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라고 하는것은 한마디로 청년들이 혁명위업계승완성의 직접적담당자로서 선행세대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투사들이며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책임지고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기둥

이라는것을 말한다.

청년들을 혁명의 청년전위라고 하는것은 청년들이 혁명을 개척하고 이끌어나가는데서 선봉대, 주력군이며 당과 수령을 맨 앞장에서 옹호보위하는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을 단순히 젊은 세대, 사회의 중진으로서뿐아니라 혁명투쟁과 결부시켜 그 지위와 역할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는데 바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후대관의 숭고성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꽃,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내세우시였다.

청년들은 나라의 미래를 대표하며 앞날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나갈 사람들도 청년들이며 미래의 사회에서 살게 될 주인공들도 청년들이다.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꽃이라고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이 청년들의 역할

에 달려있고 청년들의 모습에 나라와 민족의 발전정도, 사회제도의 진보성, 생명력이 비껴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과 포부, 신심에 넘쳐 사는 나라는 앞길이 창창하고 민족이 부강번영할수 있지만 청년들이 비관과 염세에 빠져 아무런 목적도 지향도 없이 무위도식하면서 사는 나라는 쇠퇴몰락하기 마련이다.

청년들이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되는것은 청년들이 가지고있는 장점과 특질과 관련된다. 청년들은 혈기왕성하고 용감하며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세대이다. 청년들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훌륭한 특징과 기질을 가지고있다.

지난날 그 어느 나라 혁명에서나 자유와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앞장에 서서 영웅적으로 싸운것은 바로 청년들이였다.

우리 혁명의 장구한 력사를 놓고보더라도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총대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것도 청년들이며 미제를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불뿜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은 육탄영웅도 바로 리수복과 같은 청년들이였다. 우리 청년들은 모든것이 파괴되여 재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전후 그 어려운 시기에도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걸어오면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 우리 조국을 빛내인 청년들의 투쟁과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에서 청년들이 노는 이러한 역할과 그들이

가지고있는 특질로부터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으로,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후대관은 다음으로 후대들을 위해서는 한몸바칠 각오를 가지고 투쟁해나가야 한다는 가장 숭고한 립장과 자세이다.

후대관은 후대들에 대한 견해와 관점뿐아니라 후대들을 대하는 립장과 태도를 포함한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고 그들을 위한 일에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후대관의 중요한 내용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보시는 관점으로부터 후대들을 훌륭히 키우는 사업을 당과 국가, 혁명의 최대중대사로 내세우시였을뿐아니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실 투철한 립장과 자세를 지니고계시였다.

후대들에 대한 참다운 사랑은 후대들을 훌륭히 키우는데서 표현된다.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보고 대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후대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것이 더 중요하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전도, 조국과 혁명의 장래가 결정된다.

오늘은 우리 세대가 혁명의 주인으로 되고 있지만 래일은 후대들이 자라서 혁명을 떠메고 나가는 주력군으로 된다. 그러므로 대를 이어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고 부강번영하는 조국을 일떠세우고 빛내이기 위해서는 후대들을 잘 키워야 하며 후대들을 위한 일에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후대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랑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부인것만큼 그들을 훌륭히 키우는 사업을 중시하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억만재부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것,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후대관의 본질적내용의 다른 하나가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데 대한 구호에 집약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에 우리 장군님의 후대관이 집약되여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먼 후날에 가서 후대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였으며 늘 하시는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산다는것은 자기 대에는 비록 락을 누리

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바칠 각오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제와 오늘, 래일로 이어지는 인생에서 어제와 오늘도 중요하지만 래일은 더 중요하다. 오늘에 있어서 지나간 어제와 다가오는 래일을 어떻게 대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라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은 어제의 련속이고 그 루적의 결과인 동시에 래일의 출발점이고 그 전환의 계기이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의 삶이 귀중하고 중요한것은 사실이다. 오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는가에 따라 래일이 결정되며 인간의 삶의 가치가 규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삶의 목적을 오늘에 두어야만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보다 더 중요한것은 래일이며 래일을 위해 사는데 인간의 참된 삶의 보람과 가치가 있다.

조국은 오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뿐아니라 래일에 사는 후대들을 위한것이며 조국의

무궁한 부강번영은 오늘에 사는 사람뿐아니라 후대들에 의하여 이룩된다. 후대를 떠나서 조국의 창창한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미래가 없는 나라는 무궁번영하는 나라라고 말할수 없다.

후대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이것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생애에 관통되여있는 고귀한 혁명정신이고 후대관이였다.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힘을 키우는것을 후대들에 대한 최대의 사랑, 최고의 애국으로 간주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힘이 강해야 조국도 지키고 후손만대의 행복도 꽃피울수 있다. 진정한 애국자라면 일시적인 번영보다도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보며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만년기틀을 튼튼히 다지는것을 더 큰 애국으로 여겨야 한다.

오늘 우리 조국에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 떳떳이 자랑할수

있는 무진막강한 국력이 있으며 후대들이 대대손손 만복을 누려갈수 있는 밑천이 마련되여있다. 한세기전 화승총도 변변히 없어 국권을 무참히 빼앗겼던 우리 조국이 오늘은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되였다.

우리 조국에서 일어난 이러한 세기적변혁들과 자랑찬 성과들은 다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주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을 하는 목적도 후대들을 위해서라고 하시며 불철주야의 선군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겨가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서사시적화폭은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선군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들이 일떠설 때마다 후대들에게 훌륭한것을 물려줄수 있게 되였다고 그처럼 만족해하시던 그이의 태양의 모습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자리잡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을 단행하신것도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였고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고조진군의 불길을 지펴주신것도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의 세계에는 우리 인민이 강성국가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될 찬란한 래일이 있었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광이 온 누리에 떨쳐지는 휘황한 미래가 새겨져있었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며 민족의 존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힘을 마련하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억센 기틀을 다져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이 있어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백두산대국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이다.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훌륭히 키우는것을 당과 국가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후대육성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조국과 혁명의 전도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새 세대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달려있다.

후대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위한 물질적재부도 넘겨주어야 하지만 그보다도 후대들이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도록 고귀한 정신도덕적재부를 물려주는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업에서는 우리 세대가 다하지 못한것이 있어도 후대들이 보충할수 있지만 후대를 키우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누가 보충할수도 없고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와 관점, 립장으로부터 한평생 청년중시정치, 청년들에 대한 사랑의 정치를 펼치시였으며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중대사를 론하시고 하나의 정책을 내놓으실 때에도 청년들의 지향과 요구를 먼저 헤아리시고 그들의 리상과 포부를 꽃피울수 있게 하시였으며

청년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키우는것이 청년들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고 청년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있을 때에도 우리의 청년들이 나쁜 사상과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반제, 반수정주의교양, 혁명교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분이 바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중시정치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청년운동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신 뜻깊은 날인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해주시고 첫 청년절을 맞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라는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의 명칭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시게 하시고 《청년들을 사랑하라!》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주체의 조선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세련된 령도속에 우리의 청년운동은 변화되는 정세속에서도 영광에 넘친 승리의 력사를 이어올수 있었으며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청년전위들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다.

일부 나라들에서 청년학생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 반혁명의 하수인이 되여 로세대들이 쌓아올린 탑을 허물어가고있을 때 우리의 청년들이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선렬들이 피로써 개척하고 넘겨준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믿음직하게 이어가고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청년중시정치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뿐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였으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다 어린이들에게 돌려주시였다.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 후대들을 사랑한다고 말할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전도에 대하여 론할수 없다.

하기에 인류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친 위인들은 누구나 다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중의 미덕으로 간주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으며 이 세상 천만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친것보다 더 뜨겁고 살뜰한 정으로 어린이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당과 국가가 맡아 키우도록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이 태여날 때부터 평양산원을 비롯한 각 도산원의 애기궁전에서 첫 고고성을 터치도록

하시고 가는 곳마다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을 꾸려주시여 그들이 무료교육의 혜택아래 마음껏 배우도록 해주시였다.

어린이들에 대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랑은 행복한 나날보다 준엄하고 어려운 나날에 더욱 뜨겁게 미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해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공장은 멎었어도 학교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져있었고 거리의 불빛은 꺼졌어도 배움의 창가에서는 언제나 밝은 불빛이 흘러나왔다. 이 땅우에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가 울려퍼지는 속에 수많은 현대적인 대학의 교사들과 수재양성기지들, 현대적인 전자도서관, 수영관, 체육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타는 애국의 세계, 후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요람속에서 우리의 새 세대들은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억센 기둥감들로 자라났다.

수도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즐겨 기다리는 콩우유공급시간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제정된 사랑의 시간이다.

사실 수도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꼭 같은 시간에 콩우유를 공급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워 조국의 미래로 준비시키는 사업에서는 자그마한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투철한 후대관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양학적으로 흡수력이 제일 좋은 시간을 몸소 헤아려보시고 그 시간에 수도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공급하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다심한 사랑에 받들려 콩우유차들이 수도의 중심거리를 씽씽 달리게 되였으며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은 물론 입원한 몇명의 학생들을 위해 병원에까지 콩우유차가 찾아가는 희한한 광경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까와하지 않으시였으며 아무리 사소한것이라고 해도 절대로 양보를 모르시였다.

주체82(1993)년 3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꾸리는 문수유희장에 률동영화관을 꾸려놓아 아이들에게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첨단기술이 도입되고 돈이 많이 드는 률동영화관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주로 돈벌이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고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희한한 률동영화관을 유희장과 함께 건설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마련해주시려고 결심하시였다.

곧 률동영화관 설비납입을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설비들이 일식으로 마련되였는데 뜻밖에도 우리 인민은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게 되였다. 률동영화관건설은 일군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났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왜 문수거리 률동영화관건설이 진척되지 않는 문제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는가,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 때 군대에서 전사들은 지휘관의 얼굴을 쳐다보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며 인민은 우리를 바라본다, 그래서 나는 피눈물의 언덕에서 제일먼저 일어섰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높은 뜻에 떠받들려 피눈물속에서도 률동영화관건설이 다그쳐지고 문수유희장의 면모가 새로와졌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한다니 나도 기쁘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것보다 더 훌륭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낼것이라고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그 뜨거운 후대사랑에 의해 수도 중심부에 일떠서던 어느 거리의 건설때에는 기둥을 세우고 벽체까지 쌓는중에 있던 차고가 자취를 감추고 대신 아이들의 놀이터가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몇명의 아이들

을 위한 통학렬차, 통학뻐스가 생겨나고 사랑의 다리가 일떠서는 전설같은 이야기들도 생겨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은정은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어린이들에게 다 미치는 뜨거운것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가 온 나라 인민들과 아이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우리 사회주의조국에서는 부모잃은 아이는 있어도 고아는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렬사들의 유자녀들은 물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모두를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키우도록 세심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5(1996)년 2월 모든 육아원들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료해하시고 전국의 육아원들에 대한 후방보장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계획된 주, 부식물(영양식료품)과 피복류 등 물자와 자재를 무조건 보장하는 강한 규률을 세울데 대한 특별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강행군길에서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사람들의 소행자료를 보고받으실 때면 너무도 기쁘시여 그들을 애국자로 높이 내세워주도록 하시였다.

주체98(2009)년 2월 어느날 북방의 지방도시 만포시를 현지지도하시던 길에 만포방사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많은 부모잃은 아이들을 맡아 훌륭히 키운 녀성지배인의 소행자료에 대하여 알게 되시였다.

부모잃은 새 세대 청년들이 생활하는 방이며 부엌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생활형편까지 구체적으로 보살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모잃은 청년들을 시집장가보낼 때 주려고 지성을 다해 마련한 이불, 부엌세간들도 보아주시고 그가 부모잃은 아이들에 대한 교양사업도 잘하고있다고 치하하시면서 자신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량부모를 다 잃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는데 이

지배인은 자신의 걱정을 덜어주었다고, 고맙다고 자신의 뜨거운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를 참된 애국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시대의 꽃으로 온 나라에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시였는가 하는것은 나라일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철부지라고 할수 있는 어린이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들도 빠짐없이 다 보아주시고 회답친필도 보내주신 이야기들에도 가슴뜨겁게 깃들어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가장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한평생 오로지 자라나는 새세대들과 이 땅에 끝없이 태여날 후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후대들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일관된 후대관을 자신의 인생관으로 승화시키시고 그것으로 온 생애를 관통하신 여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숭고성이 있으며 **김정일**애국주의가 그처럼 거대한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되는 근본비결이 있다.

* * *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조국번영의 위대한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고계신다.

김정일애국주의

집 필: 리성환

편 집: 안수영

발 행: 주체105(2016)년 2월

ㄱ-6201131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5(2016)년
ISBN 978-9946-0-1436-4
9 789946 014364